

2학년 4반 월 독서토론

조이름 : 사탕조

조원 : 이윤정, 홍세민, 김혜림

도서명	억울한 사람들의 나라
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	
사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을 나열하여 집필한 책을 친구들과 공유하여 ^의 생각을 나누고 싶었다.	
독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	
혜림: 이 국가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. - 세월호사건, 가슴기사건, 머르스사건 등을 기반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.	
윤정: 떠나지 않은 자 모두 유죄 - 여행을 스팅이 된 사회 - 현재 스팅사범이 치열한 이 사회에 많은 여행자에게 가지않는 사랑이 불이익을 받는다는게 안타까웠다.	
세민: 이 얼마 되지 않은 혜택마저 수 많은 이 남자들은 '역차별'의 근거로 지목받고 있다. - 주로 역차별이라고 하는 근거들은 당연한 것이였기 때문이다.	

도서 중 가장 와 닿지 않았던 부분(글쓴이의 생각과 달랐던 구절)과 그 이유

‘어떤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라는 학생들을 교사들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교실로 몰아넣었다.’

혜림: 지진이 났는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
말할대면 그것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자, 타인의 삶을
모독한 것이다.

윤정: P.61쪽. 카메라는 그 벽보를 자세히 담아 매체마다 100만
가량을 23시 ~~작성중~~으로만 채웠다. 이쯤 되면 이것을 포도주의
일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도리가 없어보인다 - 이 구절에서 굳이 포도주는
지속적인 단어라 나한테 이해가되지 않는다.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려는
선을 넘은거 같다.

세민: P.23 | 그것이 어느쪽에 있는 것이든 조작하는 눈눈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
래디컬의 정신이다

- 이 구절을 래디컬이란 이름 아래에 있던 잘못된 판단, 사건, 학생들을
너무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문제라고 저자는 생각하는것 같다.

윤정: 이러한 책을 읽으면 지식이 늘어났다는 복득함도 있지만 한 번에 ~~정정당당~~ 정정당당하다.
책이 말해주는 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생각이다, 그리고 내가 책에서
~~본~~ 본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다. 난 아직 현 시대 모든 이슈를
알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. 하지만 정치판에서의 갈등, 성별간의 갈등,
개인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끝이 좋지 않을거라는 건 안다, 난 우려가
아닌다.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조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싶지 않다.
해결책을 제시할 순 없지만 문제를 파악하기 했으니 언젠간 해결 될거라고
믿는다.

혜령: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의 억울함과 분노에 대해 다시
생각해보게 되었다.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슬프고
화가 났다.

세민: 이런 수많은 사건과 억울함, 분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존재한다
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. ~~정제~~ 이 큰 문제들의 끝을 ~~여기~~ 막으려면
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지만 겨우 넘길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.

저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?

세상이 긍정적이기 위한 것은 사랑이 되고 있다